

최근 대(對)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과 시사점

김유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(ymkim@kiep.go.kr, Tel: 3460-1075)

차 례 ●●●

1. 대(對)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
2.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
3. 투자전망 및 시사점

주요 내용 ●●●

- ▶ 2011년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총 180억 달러로 전년대비 39% 증가하였고 2012년 1/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0% 증가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.
 - 업종별로는 제조업(74억 달러), 광업(41.5억 달러), 소매업(26억 달러), 운송·보관·통신업(23억 달러)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국가별로는 싱가포르(51억 달러), 일본(15억 달러), 한국(12억 달러)이 주요 투자국으로 집계됨.
- ▶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FDI 유입 증가는 △ 인도네시아 경제개발회랑(EDCs) 계획의 구체화 △ 신(新)투자 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△ 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 △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 - EDCs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각종 허브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건설하여 경제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장기개발계획으로 총 4,720억 달러의 투자가 요구됨.
 -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령 2012년 16호인 투자계획안(RUPM)과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1년 52호를 발표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함.
 - 특히 인구와 중산층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대한 투자기회가 예상되며,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성장 잠재력과 지속적인 GDP 성장률이 투자를 유인함.
- ▶ 한국·인도네시아 간 경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대인도네시아 투자확대를 위한 전략이 요구됨.
 -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개선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.
 - 한국정부도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을 조기에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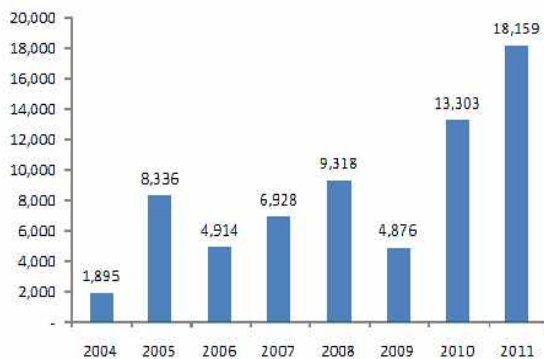
1. 대(對)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

■ 2011년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총 181억 달러(실행 기준)로 전년대비 39%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(그림 1 참고).

-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 유입액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약 49억 달러로 하락했으나 2010년 약 133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급증하고 있음.
- 2011년 투자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, 제조업이 약 74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40%에 달하며, 광업이 41.6억 달러(22%), 소매업이 26억 달러(14%), 수송·보관·통신업이 23억 달러(13%)를 기록했음(그림 2 참고).

그림 1. 연도별 인도네시아 FDI 유입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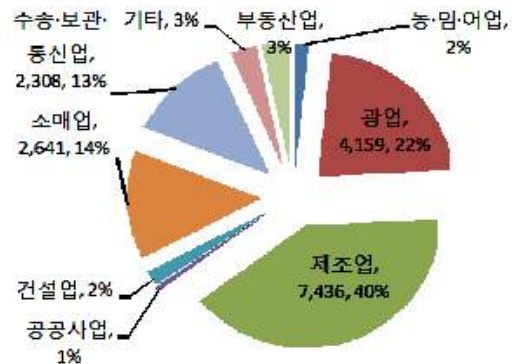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그림 2. 업종별 인도네시아 FDI 비중(2011년)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■ 2011년 대(對)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을 보면, 싱가포르가 약 51억 달러로 전체 FDI의 31%를 차지했으며, 그 뒤를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9.2%와 9.1%로 2위와 3위를 차지함.

- 한국도 약 12억 달러(7.5%)로 주요 투자국의 위치를 점함(표 1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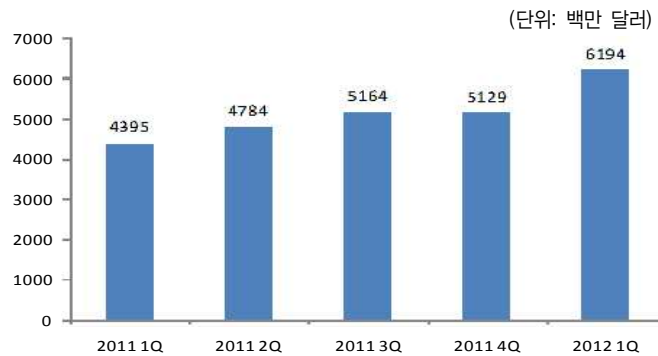
표 1. 대인도네시아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(2011년)

순위	국가	투자기준 금액(백만 달러)	비중(%)
1	싱가포르	5,123	31.3
2	일본	1,516	9.2
3	미국	1,487	9.1
4	네덜란드	1,354	8.3
5	한국	1,218	7.5
6	말레이시아	618	3.8
7	버진아일랜드	517	3.2
8	영국	419	2.6
9	대만	243	1.5
10	독일	158	1.0
총계	합 계	18,159	100.0

자료: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(BKPM).

- 최근의 FDI 유입액 추이를 살펴보면, 2011년 1/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2012년 1/4분기에는 약 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% 증가함(그림 3 참고).

그림 3. 최근 인도네시아 분기별 FDI 유입 추이



자료: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(BKPM).

- 특히 2012년에 일본 대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함.
- o 닛산 그룹이 4억 달러, 혼다가 3억 4,000만 달러, 도요타가 2억 달러, 샤프전자가 1억 3,00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(표 2 참고).

표 2. 일본 대기업의 주요 투자 현황

기업명	규모	부문
닛산 그룹	4억 달러	자동차
혼다	3억 4,000만 달러	자동차
도요타	2억 달러	자동차
샤프전자	1억 3,000만 달러	가전제품

자료: 국내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-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대인도네시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.
- o 모건스탠리는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인 티가 팔라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노무라 홀딩스, 씨티(Citi) 그룹 등은 2011년에 인도네시아 주식 운영 인력을 확충함.

-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음.

- POSCO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인도네시아 칠레곤(Cilegon) 지역에 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지난해 결정함.
- 한국타이어도 약 12억 달러 규모의 타이어 제조 공장을 인도네시아 브카시(Bekasi) 지역에 건설할 계획을 2011년도에 발표함.

- 이 외에도 STX는 2012년 초 3,000만 달러를 투자해 IAC(PT Indonesia Cemerlang)사로부터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키타프 지역의 석탄광 지분 40%와 판매·운영 독점권을 인수하였음.

그림 4. 최근 한국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지역



자료: 상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글맵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2.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

-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 유입이 급증하는 배경으로 △ 경제개발회랑계획의 구체화 △ 신(新)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△ 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 △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들 수 있음.

가. 경제개발회랑(IEDCs) 계획의 구체화

-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5월 경제개발회랑(IEDCs: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) 중심의 인도네시아 중장기경제개발계획(MP3EI: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)을 발표함.
- IEDCs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각종 허브(대도시)와 산업단지(경제특구, 자유무역지대)를 연결하는 인프라(공항, 도로, 철도, 항만, 발전소 등)를 건설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장기개발계획임.
- 구체적으로 ① 수마트라 회랑, ② 자바 회랑, ③ 칼리만탄 회랑, ④ 술라웨시 회랑, ⑤ 발리-누사 툽가라 회랑, ⑥ 파푸아-말루쿠 회랑 총 6개 회랑으로 구성됨.

그림 5. IEDCs 개관



주: ■ 메가허브 ● 허브/주요 도시.

자료: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Indonesia(2011).

- 인도네시아 정부는 6개 경제개발회랑에 총 4,72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,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또는 민관합동(PPP: Public-Private Partnership) 형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조달재원 구성을 살펴보면, 민간부문이 5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민관합동(PPP) 방식이 21%, 국영기업과 정부가 각각 18%와 10%임.

표 3. 경제개발회랑 자원조달 비중

구분	비중(%)
민간부문	51
민관합동	21
국영기업	18
정부	10
총 계	100

자료: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Indonesia(2011).

-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회랑별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.
-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1년 5월 27일에 발표한 ‘2011~25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’에 따르면, 경제개발회랑 계획은 다음과 같음.
 - o 수마트라 회랑에서는 천연자원, 자바 회랑에서는 공업 및 서비스, 칼리만탄 회랑에서는 광물자원 및 에너지, 술라웨시 회랑에서는 농업, 플랜테이션, 어업, 원유가스, 광물자원, 발리-누사 툽가라 회랑에서는 관광 및 식료품, 파푸아-말루쿠 회랑에서는 식료품, 어업, 에너지, 광물자원 분야가 중점적으로 개발될 계획임.
- 6개 회랑 중 가장 투자비중이 높은 회랑은 자바 회랑(32%)이고, 그 다음은 칼리만탄 회랑(24%), 수마트라 회랑(18%), 파푸아-말루쿠 회랑(15%) 순이며, 술라웨시 회랑(8%), 발리-누사 툽가라 회랑(3%)은 미미함.

표 4. 경제회랑 별 주요 개발사업 및 중점육성산업 개요

경제회랑명	중점육성산업	투자규모(%)
① 수마트라	철강, 조선, 팜유, 고무 석탄 등	840억 달러(18%)
② 자바	식료품, 섬유, 운송장비, 조선, 정보통신, 방위산업 등	1,518억 달러(32%)
③ 칼리만탄	철강, 보크사이트, 팜유, 석탄, 원유·가스, 목재	1,112억 달러(24%)
④ 술라웨시	니켈, 식품, 원유·가스, 코코아, 어업	363억 달러(8%)
⑤ 발리-누사 툅가라	관광, 축산, 어업	156억 달러(3%)
⑥ 파푸아-말루쿠	니켈, 구리, 식품, 원유·가스, 어업	732억 달러(15%)

자료: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Indonesia(2011).

나. 신(新)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

■ 2012년 2월 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신투자법을 보완하는 대통령령 2012년 16호, 신(新)투자계획안(RUPM)을 발표함.

- 신투자계획안에서는 2025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명시하고 있음.
- o 신투자계획안 1단계에서는 투자 장애요인 제거, 2단계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 환경개선, 3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도네시아 국내기업의 규모 확대, 4단계에서는 기업들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(그림 6 참고).

그림 6.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계획안



자료: 2012년 투자계획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- 신투자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o 첫째,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투자조정위원회가 도입한 원스톱 서비스(PTSP)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.
- o 둘째,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복투자를 금지하고 자바섬 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.
- o 셋째, 쌀, 옥수수, 콩, 사탕수수, 야자수 등의 농업과 철강,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, 전력, 송전, 대체에너지 발굴 등 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춤.

■ 2011년 말 발표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1년 52호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.

- 정유, 석유화학, 금속, 기계 등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주요 산업에 대해 1조 루피아(약 1억 1,000만 달러) 이상을 투자할 경우,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.

■ 이 외에도 2009년에 발표된 신(新)광업법을 근간으로 2012년에 관련 법령 시행세칙이 추가되면서 광물과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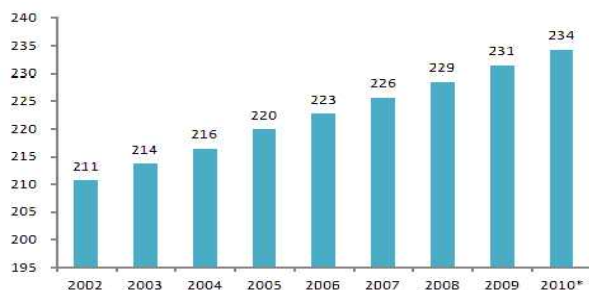
- 2009년에 제정된 신광업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광업 부문 투자를 허용했으며, 5년 동안 광업 지분율 100%를 허용함.
- 또한 신광업법에는 인도네시아 내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 후 수출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 있음.
- o 2012년 2월 초 발표된 ‘광물자원의 국내 가공·정제 의무조항에 대한 시행세칙’에서 2014년까지 모든 광물자원이 가공된 상태에서 수출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관련 제련 및 가공설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.

다. 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

■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3,400만 명으로 중국, 인도, 미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이며, 이 중 201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비율이 67.4%로 높은 편임(그림 8 참고).

- 인도네시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(그림 7 참고),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 가용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데다 이들 계층이 신흥 소비층으로 등장하고 있음.

그림 7. 인도네시아 인구수 추이
(단위: 백만 명)



주: * 추정치.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그림 8. 인도네시아 생산가능인구 비율 추이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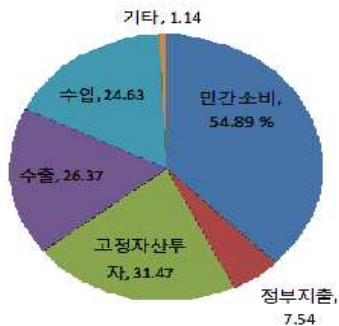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CEIC; World bank.

■ 2011년 GDP에서 민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.9%로 비교적 높으며, 이 중 도시 거주자의 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(그림 9 참고).

- 2001년 이후 도시 거주자들의 소비지출이 연평균 14% 증가하여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음(그림 10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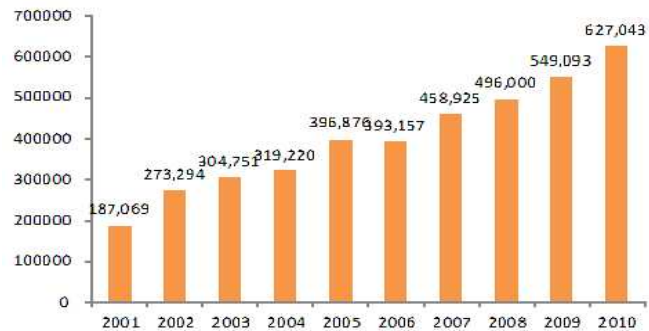
그림 9. 인도네시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

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그림 10. 인도네시아 도시민 1인당 소비지출 추이

(단위: 루피아)



자료: CEIC; BKPM.

- 인도네시아는 가처분소득이 5,000달러에서 3만 5,000달러에 달하는 중산층 규모가 2009년 기준 8,200만 명에서 2015년에는 1억 7,000만 명, 2020년에는 약 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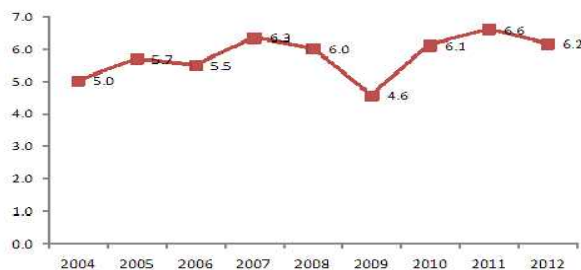
라.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

■ 인도네시아는 견실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

- 2008년 말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2011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.6%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 경제성장률도 6.2%로 전망되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(그림 11 및 그림 12 참고).

그림 11.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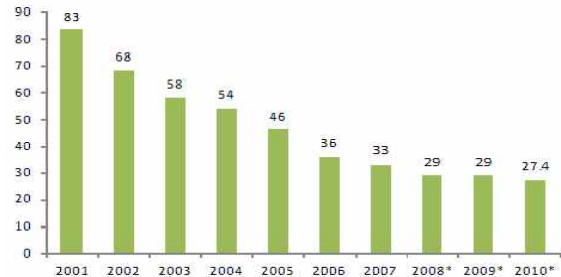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.

그림 12. 연도별 인도네시아 공공부채 추이

(단위: GDP 대비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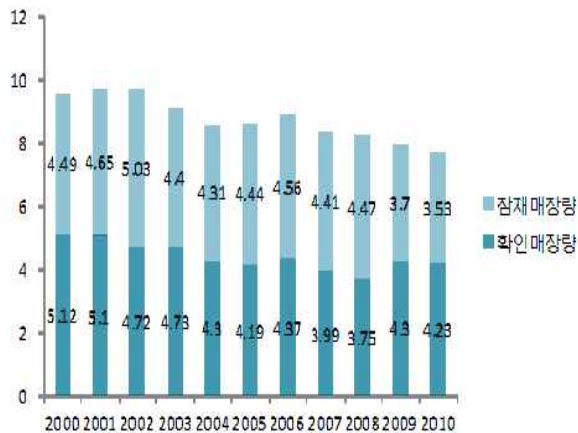
주: * 추정치.
자료: EIU.

■ 한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도 세계 10위권 내로 분석됨.

- 석유는 확인매장량이 2010년 기준 42.3억 배럴로 세계 22위권 수준이며, 잠재매장량을 포함하면 77.6억 배럴에 달함.
- 천연가스는 확인매장량과 잠재매장량을 합하면 2010년 기준 157.1조 입방피트(TSCF)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함.
- 2010년 기준 광물자원 중 주석 매장량은 80만 메트릭톤(MT)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, 니켈은 390만 메트릭톤, 동은 2,800만 메트릭톤으로 각각 세계 6위와 8위를 차지함.

그림 13. 석유 매장량 추이(2010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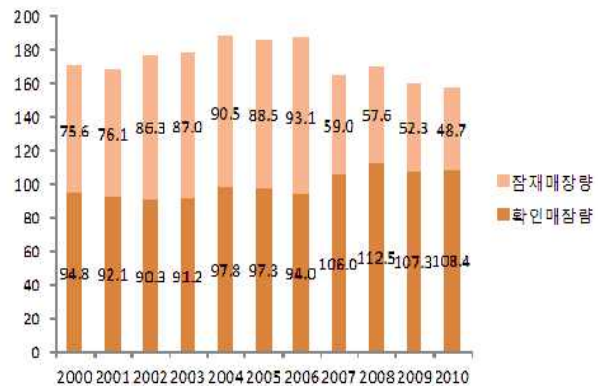
(단위: 십억 배럴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(2011).

그림 14. 천연가스 매장량 추이(2010년 기준)

(단위: TSCF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(2011).

3. 투자전망 및 시사점

가. 투자전망

-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(BKPM)은 경제여건 개선과 국가신용도등급 등의 상향으로 향후 FDI 유입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.
- 2011년에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가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'BBB-'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012년에 Moody's와 S&P가 각각 'Baa3'와 'BB+'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올림(표 5 참고).

표 5.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 현황

구분	신용등급	변경 일자
S&P	BB+/Positive	2012. 4. 17
Moody's	Baa3/Stable	2012. 1. 18
Fitch	BBB-/Stable	2011. 12. 15

자료: S&P, Fitch, Moody's 자료 취합하여 저자 정리.

- UNCTAD는 세계투자전망보고서(2011)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2년간(2011~13년) 제7위의 투자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함(표 6 참고).
- 이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2012년 인도네시아 FDI 유입액 목표치를 전년대비 25% 증가한 약 300억 달러로 설정함.

표 6. 상위 투자대상국(2011~13년)

순위	국가
1	중국
2	미국
3	인도
4	브라질
5	러시아연방
6	폴란드
7	인도네시아
8	호주
9	독일
10	멕시코

자료: UNCTAD, *Global Investment Trends 2011*.

나. 시사점

-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도네시아가 안정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한국·인도네시아 간 경제 협력이 예상됨.
-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간 교역량이 오는 2015년까지 500억 달러, 2020년까지 1,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확대와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함.
- 인도네시아의 개선된 투자환경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함.
- 소비지출이 연평균 14% 증가하고 있는 도시거주자들 중심의 소비재 시장 진출, 법인세가 면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전략 등이 요구됨.

-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점육성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일본과의 협력 및 투자지역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함.
- o 자바 회랑과 수마트라 회랑 개발의 경우 대부분 일본정부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일본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, 장기적으로는 이외 지역(예: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등)에 대한 진출을 모색해야 함.
- o 일례로 칼리만탄 회랑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천연자원이 풍부하므로 이에 따른 투자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임.

표 7. 칼리만탄 경제회랑 내 주요 개발 프로젝트

번호	지역	주요 자원	관련 인프라	예상 투자소요액 (조 루피아)
1	Bontang, Kutai Timur	보크사이트	항만, 도로, 철도, 전력·에너지	36.0
		팜유		5.35
		석탄		62.79
		목재		7.45
2	Kotabaru, Tanah Bumbu	철강	전력·에너지, 도로, 육상컨베이어	6.56
		팜유		2.81
		석탄		5.42
		목재		1.27
3	Barito	철강	전력·에너지, 항만, 도로	35.0
		팜유		2.79
		목재		6.29
4	Pontianak, Mempawah	보크사이트	공항, 도로, 전력·에너지	62.22
		팜유		17.97
		석탄		4.5
		목재		9.59

자료: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(2011).

-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을 조기에 체결하여 민간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.
- CEPA 협정을 조기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, 인도네시아의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함. KIEP